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호 【루계 제25893호】 주체107(2018)년 1월 19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이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공동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철학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 자력갱생연구소조는 조선반도에서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과 미국의 핵장비들,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이 중지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베넨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베넨전국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조선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군사적위협과 초강도제재압박에 매여달렸지만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천명하시였다.

조선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과 남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하며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조선반도의 정치전략정세를 정확히 분석한 귀중한 문헌이다.

그이께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내놓으신 방안들은 대단히 심오하고 정당한것이다.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세계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그이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조선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며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는 3일 이렇게 밝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조선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중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더이상 의존하지 말며 조선통일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반도에는 통일의 려명이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네트에 게재,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의 전문을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루》가 게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뜨출판사에서 지난해 12월 2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로므니아사회주의당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5일 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로작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당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깊이 학습하며 사회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주체107(2018)년 2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진행된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명 30돐이 되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할 이번 축전은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최후승리를 향한 주체조선의 힘찬 진군길에 영광의 기치로 빛을 뿌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다함없는 경모심의 아름다운 정화이다.

만민의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영원불멸할 태양의 꽃축전은 이 땅우에 백화만발한 사회주의락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충정의 대축전으로 된다.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은 광명성절을 환희롭게 경축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드높이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선전선동의 화력을 총집중

평양시당위원회에서

평양시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수도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조직전개해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에 시안의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 총집중시켜나가고있다.

선전선동부의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지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능동적이고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선전선동부의 조직사업에 따라 평양체육관앞을 비롯하여 시안의 100여개의 주요장소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정치사상적위력》, 《계속혁신, 계속전진》 등을 비롯한 많은 구호판들과 표어들, 선전화들이 게시되여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수도시민들의 혁명적열의와 기세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또한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구내와 실내에 구호들과 표어들, 전투속보들을 게시하여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평양역과 개선문주변을 비롯하여 시안의 백수십개 주요장소들에는 방송선전차들이 배치되여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에 대한 방송선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창전네거리를 비롯한 수십개의 주요장소들에서도 수천명의 녀맹원들이 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새해전투가 벌어지는 수도의 분위기를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시안의 모든 구역, 군당위원회들에서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선전선동수단들의 출동식을 의의깊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전력생산으로 들끓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주요전투장들에 시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 녀맹예술선동대, 집중강연선전대, 도서해설선전대들을 기동성있게 내보내여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와 함께 2.8직동청년탄광과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들에 대한 경제선동활동과 지원사업을 잘하여 석탄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여러 탄광들에 대한 경제선동과 지원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시안의 백수십개 단위 일군들이 경제선동대원들과 함께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을 로력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선동사업을 박력있게 들이대며 성의껏 준비한 많은 설비와 자재, 지원물자를 넘겨주어 탄부들을 석탄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선전선동부에서는 과장이상 일군들이 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나가 농업정책선전사업과 장악지도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사회주의협동벌에 나래치는 비약의 기상

첫 보름동안에 수천만t의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일혼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밑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다수확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하루하루를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이들의 투쟁에 의해 전례없는 성과가 이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의 첫 보름동안에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수천만t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전들에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농업성 일군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울 결의밑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터득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었다.

각 도, 시, 군일군들도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가 울려퍼지는 협동벌마다에서 위훈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나라의 중요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기세좋게 전진하였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긍지안고 모든 힘을 농사차비에 집중하여 첫 보름동안에만도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재령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 기어이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충천한 기세로 전투장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배천, 연안, 안악군에서도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전으로 실어냈다.

평안북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될 열의드높이 정초부터 눈부신 혁신을 창조하였다.

구장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는 철리를 깊이 새겨안고 떨쳐나 일정계획보다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신의주시와 철산, 박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안고 모든 힘을 농사차비에 집중하여 날마다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은 평안남도의 농촌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덕천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청남구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 모판자재확보 등을 동시에 내밀어 농사차비를 제때에 끝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나갔다.

황해북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애국의 피를 끓이며 올해의 첫 전투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자각한 사리원시와 연탄, 승호, 중화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유기질비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땅을 기름지울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나갔다.

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농사차비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매일 석탄생산계획 넘쳐 수행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 기세를 올리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계획은 매일 넘쳐 수행되여 지난 17일까지 천수백t의 석탄을 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해 정초부터 증산돌격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갈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는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를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새해의 총진군에서 기수, 전위투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일념안고 막장들에 나가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일 석탄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도록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탄밭을 충분히 마련해놓은데 맞게 채탄에 력량을 집중하고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에 힘을 넣어 탄부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각 탄광의 일군들은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득장청년탄광의 탄부들은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련일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탄광일군들은 3갱과 5갱을 비롯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갱들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명학탄광에서는 현장경제선동을 비롯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막장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이곳 탄광의 막장들에서 맹렬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속에 2갱과 1갱의 탄부들이 련합기업소적으로 혁신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룡산탄광에서는 탄상조건에 맞게 앞선 발파방법과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석탄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일군들은 6갱, 5갱을 비롯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탄광안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보장단위들에서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탄부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안에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맹렬한 생산돌격전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날을 따라 석탄생산성과는 확대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명춘길

고압애자생산성과 확대

강원도송배전부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강원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룡천군 구읍지구에 고압애자생산기지를 새롭게 꾸려놓고 여러가지 종류의 고압애자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가적인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전력량비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고압애자생산기지를 꾸릴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심장에 새기고 애자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경험도 없고 처음 해보는 일이여서 고압애자생산기지를 꾸리는 과정에는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룡천도자기공장 일군들,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애자생산에 필요한 생산건물개건과 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리였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은 애자생산기지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부족되는 설비와 로력,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하여 지난해 룡천군에 애자생산을 위한 건물을 단 50일동안에 번듯하게 꾸려놓은데 이어 원료분쇄로부터 소성공정에 이르기까지 애자생산에 필요한 설비들과 통합생산조종체계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애자생산기지를 꾸리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떨쳐나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여러가지 질좋은 고압애자들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내걸고 생산공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애자생산을 맡은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장해주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청진강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19)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시며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언제나 참관자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이 수놓아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더듬어보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우리는 뜨거운 감회를 안고 참관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의 새 조국건설시기관 3호실에 들어섰다.

강사는 이 호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인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민족간부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자료들과 함께 그이께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고 하면서 해설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강사는 먼저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인 로동당창립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앞에서 새 조국건설의 나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내오는것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가장 절박한 요구임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하순 남북조선공산당 책임일군협의회를 여시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하는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남북조선의 정세가 다르고 투쟁임무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북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신민당이, 남조선에서는 공산당과 인민당, 신민당이 합동하여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창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과 다른 당들과의 합동을 실현하는데서 민주주의원칙을 구현하도록 하시였으며 그를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주체35(1946)년 8월 하순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로동당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로동당의 창립, 그것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로동당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우리는 벽면에 부각되여있는 우리 당마크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마치와 낫과 붓을 형상한 당마크는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따라 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헤쳐온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다음벽면으로 우리를 안내한 강사는 민족간부는 새 조선건설의 기둥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주면서 건국의 나날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지식인들을 교양개조하며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들을 키워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각지에 흩어져있던 과학자, 기술자, 문학예술인들을 한명한명 찾아내여 데려오도록 하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근로인민의 첫 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시였다.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렀다.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신 후 만경대를 찾으신 그날 이곳 만경대에는 과거에 나라를 찾으려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킬 학교를 건립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

참관자들은 혁명가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혁명의 골간들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은정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다음벽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신데 대한 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강사는 애국운동의 앞장에 선 철도로동자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7월 공개편지를 보내시여 철도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해 가을 몸소 정주기관구를 찾으시여 로동계급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주기관구 로동자들이 당의 뜻을 받들어 대중적인 혁신을 창조하였을 때에는 친히 감사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운동에 앞장선 선구자의 이름을 붙여 《김회일운동》으로 부르게 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애국운동의 불길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로 급속히 타번져갔다고 하면서 강사는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의 발기로 시작된 애국미헌납운동에 대하여서도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38(1949)년 3월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문맹이 완전히 퇴치된 사실을 전하는 전시자료들도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켰다.

보통강개수공사장의 전경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반경화앞에 서니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우리 인민이 애국으로 뭉친 힘으로 단 55일만에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나날이 돌이켜졌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뜨신 애국의 첫삽은 보통강의 재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해방된 이 땅에 부강한 새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첫삽이였으며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뜻깊은 첫삽이였다고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참관자들은 이어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을 찾으시여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영상미술작품을 경건히 우러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떨쳐나선 평양시민들이 안아온 기적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 안기면 어제날 천대받던 사람들도 영웅적인민으로 자라난다는 진리를 선언하고있다.

친히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와 문수봉에 함께 심으신 나무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며 참관자들은 새 조국의 첫 기슭에 새기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이어 우리를 새 조국건설시기관 4호실로 안내한 강사는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정권을 세우시여 우리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되게 하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온 나라가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당시까지만 하여도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낡은 부르죠아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엎고 그우에 새롭게 세우는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인정되여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시적인 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를 사회주의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맞게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정권을 세울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주의선거를 실시하여 림시적인 성격을 띤 인민위원회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도록 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때 선거규정에 따라 인민위원후보자추천사업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으며 선거구들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선거구 후보자로 높이 추대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시여 투표하시는 영상사진문헌앞에 섰다.

나라없던 세월 모진 천대와 학대를 받아오던 로동자출신 후보자에게 찬성투표하신 위대한 수령님.

정녕 그 시각은 항일의 눈보라를 헤쳐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은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이 땅의 로동계급을 나라의 주인으로 더욱 높이 떠받들어주시는 력사적인 순간이 아니였던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민주선거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강사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의 첫 사회주의정권으로서 인민들은 이를 무기로 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로 들어서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벽면으로 참관자들을 이끌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빈터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오직 인민을 굳게 믿고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을 과감히 헤치시였다.

강사는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이 우리 나라의 첫 경제계획으로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쌓게 하는 경제건설강령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갈 비결을 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동시키는데서 찾으시고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황철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용광로를 짊은 기간에 살려내여 첫 쇠물을 뽑았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기적들이 창조되였다.

《이 전시물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입니다.》

벽면아래에 전시된 전동기와 변압기앞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였다.

그 전시물들을 보며 우리는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연길폭탄정신이 건국의 나날에로 련면히 이어져왔으며 내 조국의 승리의 력사는 곧 자력갱생의 력사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일어나 1947년도 국영공업총생산액계획이 초과완수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지의 공장들과 농촌들을 찾으시며 지펴주신 대중적증산투쟁의 불길속에 도처에서 비약의 나래가 세차게 퍼덕이고 일터마다 사람들의 투쟁열의로 활화산처럼 끓어번진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인민경제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경공업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내용이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문제를 중시하시며 평양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부문의 공장들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함께 입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방직공업부문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질좋은 옷감을 많이 생산할 방도를 의논해주시였다.

강사는 이어 우리 나라에서 낡은 화폐가 철폐되고 새로운 화폐가 류통되게 된것은 단순한 화폐교환이 아니라 하나의 혁명이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폐개혁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화폐류통을 국가가 자주적으로 조절통제할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경리앞에 나선 당면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을 이끄신 내용들도 해설하였다.

마탄판개공사 준공식을 소개한 자료는 관개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시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 물에 대한 소원까지 풀어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호실에서 류달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끈것은 양덕군 은하리의 구지골을 방불하게 보여주는 모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골짜기의 벤끝에 자리잡은 귀틀집까지 찾으시여 산골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강사는 이 시기 교육, 문화분야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문학예술 특히는 영화가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위력한 무기라는것을 꿰뚫어보신 그이께서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흩어져있던 영화인들을 불러주시였으며 명당자리에 영화촬영소의 터전도 잡아주시였다. 하여 해방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이 태여났고 여러편의 가극, 연극들이 련이어 창작되였다.

다음벽면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해드리신 내용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서재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젖어들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만들어주시였던 장군복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건국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이였다.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애국의 불길, 자력갱생의 봉화는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터전을 굳건히 다지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였음을 깊이 새기였다.

글 본사기자 김인선
본사기자 최유일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것, 이것은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여기서 일군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하다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군중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하여야 합니다.》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화하신 이야기들중에서 제일 인상깊은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수령님께서 머슴으로 가장하시고 푸르허에 가시여 온 마을을 혁명화하신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작상필요로 《머슴살이》를 하신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있었던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머슴살이》를 하신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려주신 다음 말씀을 이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머슴살이》를 그처럼 능숙하게 하실수 있은것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인민적인 품성을 지니고계셨기때문이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푸르허에서 진행하신 혁명활동에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수령님께서는 실지 머슴살이를 해보신적이 없지만 교활하기 그지없는 적특무들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짜머슴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시면서 능숙한 방법으로 마을사람들을 교양하시였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수 있었는가. 그것은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늘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배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대중을 제일 훌륭한 선생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서 배우셨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였기때문에 대중의 처지와 심정, 지어 풍습과 생활습성까지 속속들이 꿰들고계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이 고귀한 모범을 따라배운다면 혁명사업에 필요되는 모든 지식을 풍부하게 쌓을수 있을것이다, 동무들이나 나나 수령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비하면 아직 백지나 다름없다는 자각을 가지고 서로 고무하면서 책도 더 많이 읽고 대중속에서도 배우면서 지식의 탑을 착실하게 쌓아나가자고 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 지식의 탑을 한치한치 쌓아올려 박식해질 때만이 사람들을 바로 지도할수 있다는 그이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자.

실력이 있어야 대중을 바로 지도할수 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포시의 한 책임일군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포시의 실태를 알아보시고 새로 직할시가 된 남포시를 꾸려나가자면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을것 같아서 일부러 찾았으니 서슴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올렸다.

남포항부두공사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확장공사에 필요한 대형기계설비들에 대한 문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건설에 필요한 대형굴착기와 기중기, 혼합기문제…

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포시야 큰 공장들도 많이 가지고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기중기나 혼합기같은것은 자체로 만들수 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시안의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과 의논해보았으나 자체로 해결할 방도가 잘 나서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공장들에 나가 로동자동무들과 의논해보았는가고 하시였다.

일군은 그만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답도 드릴수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 관계부문 일군들과는 몇번 협의회를 진행해보았지만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있는 로동자대중속에 들어가 진지하게 의논해보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일군의 심중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여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린 강선의 로동계급을 가지고있는 남포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것도 해결하지 못하여 우에다 손을 내민다는것은 도무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일군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로동계급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걸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라에 손을 내밀 생각만 하고있은 자신이 부끄러웠던것이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물론 행정경제일군들은 실무가들이니까 모든것을 실무적으로 타산할수 있지만 당일군들은 그렇게 타산해서는 안된다고, 당일군들은 6만t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낸 우리 로동자들의 심장의 크기를 볼줄 알아야 하며 그 심장을 발동시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선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나가 그곳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부터 짜고들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것이라고, 당에서 힘껏 밀어줄테니 한번 대담하게 내밀어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일군은 그길로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결과는 참으로 대단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일부 사람들이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곤난하다고 하던 기중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건설기계들을 짧은 시일안에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야외부재생산장을 만들어놓고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량의 부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이런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라!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정순학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산협을 가로지르며 거대한 성벽마냥 우뚝 솟아오른 발전소언제를 바라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각은 깊어진다.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돌이켜져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강성국가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되였을 때였다.

우리 청년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발전소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 청년들을 축하해주시며 믿음과 사랑이 담긴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전위투사들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수도 평양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높고 험한 이 심산계곡에서 해를 두고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 싸웠다고 하시며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뜨거운 정과 사랑이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모두가 눈물을 머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번쩍거리는 도시의 번화가가 아니라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 솔선 달려와 당의 뜻을 꽃피우며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청년들,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고 매일, 매 시각 량심의 점수를 매기면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청년들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른 대상공사들과 달리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면 청년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용솟음친다고 말씀하시였을 때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다시금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우리 당의 이 믿음의 구호, 투쟁의 구호가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곳마다에서 세차게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완공,

그것은 언제나 청년들을 중시하고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온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그처럼 긍지높이 선언하신것이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전위들이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라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혁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계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기계공업부문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 우리 식의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놓고 기계공업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현시기 우리 식의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서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본다.

부상 한원명: 그렇다. 최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식의 기계제품의 개발과 계렬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서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는 선결조건이다.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무쇠철마들을 팡팡 만들어내자면 현대화문제를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함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 관철을 위해 성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있는지 알고 싶다.

국장 최하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성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뜨락또르부속품가공의 정밀도를 더욱 높이고 뜨락또르를 경량화하는 사업에 계속 모를 박아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총조립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 로보트화하고 주물직장과 소재직장을 비롯한 소재생산공정을 훌륭히 개건하여 새형의 뜨락또르년간생산능력을 철씬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국장 조순길: 성에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새형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실제작을 프레스화하는 공정을 꾸리고 가열도장흐름선에 필요한 수십대의 설비들을 기술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모든 부분품들과 부속품들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 측정수단들을 더욱 원만히 갖추기 위한 계획도 세워졌다.

기자: 성아래 다른 공장들에서도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고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며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국장 전광섭: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성아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격전이 벌어지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가공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면서 장비생산공정과 제관공정에 합리적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타빈날개주조공정에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타빈날개의 수명을 2배이상 늘이고 가공정밀도를 설계의 요구대로 더욱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수력발전설비의 질보장에서 보다 새로운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과제도 선정되여 적극 추진되고있다.

성에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연소모형에 의한 주조공정을 확립하여 주물품생산에 리용함으로써 가공시간을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수차바가지소재생산에서 실수률을 철씬 끌어올리는 사업과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고 현재 있는 공작기계들의 정밀도와 성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국장 조순길: 이밖에도 성에서는 전기기계설비생산에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기절약형의 건식변압기와 새형의 전동기를 비롯한 전기기계제품들의 품종을 더욱 늘이며 대형애자성형기의 CNC화를 실현하여 애자의 질을 높이고 산화아연피뢰기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뿐만아니라 절연물의 급수를 높이고 베아링공장들에서 뜨락또르,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새 품종의 베아링들을 적극 개발하고 베아링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작전도 짜고들고있다.

부상 한원명: 올해 성앞에 맡겨진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생산계획은 지난해보다 높다. 화학,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의 생산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대상설비생산과제 역시 간단치 않다.

하지만 우리는 만짐을 지고 전속으로 내달리는 기관차가 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의 총돌격전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되겠다.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전투좌지를 정한 우리 성의 일군들은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맡겨진 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과제는 아름차고 방대하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우리 성의 일군들은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을 박력있게 조직지휘함으로써 우리 식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지름길을 개척하겠다. 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기계공업부문이 앞장에 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본사기자 김충성

자력갱생의 한길

◇ 우리 힘, 우리 기술, 우리 자원으로 번영할 사회주의경제강국의 억센 기초는 어떻게 굳건히 다져지고있는가.

지난해말 김일성광장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이 또다시 숭엄히 어려온다.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을 바라보며 격정에 설레이던 인민들, 그들의 가슴마다에서 용암마냥 끓어번진것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이였고 우리 손으로 앞당겨오는 경제강국의 래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우리의 멋, 우리의 슬기, 우리의 식이 살아숨쉬는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불같은 열정을 안고 또다시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며 어떤 결사의 투쟁기풍을 발휘해야 하는가를 순간순간 자각하고있다.

◇ 자력갱생은 어제와 오늘도 그러했지만 래일도 영원할 우리 자립경제의 진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후 빈터우에서 맨손으로 만든 《승리-58》형자동차와 《천리마》호뜨락또르, 첫 《붉은기》호전기기관차, 나라가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태여난 CNC공작기계들을 비롯하여 조선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전통과 투쟁위훈을 전하는 창조물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생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겼다.

기계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자력갱생의 승전포성을 계속 우렁차게 울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현대화된 일터에서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것으로써 조선의 자력갱생이 어떤것인가를 세계앞에 다시금 과시하여야 한다.

◇ 자력갱생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자력갱생으로 더 높이 비약하자.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군길에서 발휘해야 할 투쟁정신이 자력갱생이라면 백승의 보검은 과학기술이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단위 일군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길에서는 단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철저히 의거하여 설비들의 현대화도 높은 수준에서 밀고나가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원쑤들의 봉쇄의 사슬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무쇠철마들을 생산한다는 의지를 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한대한대의 기계설비마다에 자력자강의 위력한 사상을 총탄처럼 만장약시켜야 한다.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여!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한길로 폭풍노도쳐 내달림으로써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결사관철의 선봉투사가 되자.

우리 식 기계설비들의 개발생산에 박차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목을 끄는 어로용설비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전자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동시복사식전방향어군탐지기와 어로용그물감시기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고기배아래방향의 물고기떼만을 탐지하는 수직어군탐지기와는 달리 동시복사식전방향어군탐지기는 고기배를 중심으로 360°의 모든 방향에 있는 물고기떼를 동시에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어군탐지기는 고기배주위에 있는 물고기떼의 위치와 방향, 깊이와 크기를 실시간적으로 알아내여 과학적인 조준어로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이다. 이곳 연구사들은 동시복사식전방향어군탐지기의 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개의 진동자가 달린 위상배렬안테나와 실시간다통로송수신장치, 현시처리장치를 자체로 개발제작하였다. 이 어군탐지기는 탐색시간이 오랜 순차복사식전방향어군탐지기와는 달리 고기배주위의 물고기떼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신속정확히 탐색하여 현시하여주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

우리의 과학자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우리 식 기계설비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어로작업과정에 그물의 벌림상태와 잠김깊이뿐아니라 그물주위의 물고기회유상태, 그물이 던져진 해당 바다물층의 온도까지 측정하여 현시하는 그물감시기도 개발제작하였다. 일단 그물에 설치만 하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수중에서 무선으로 송수신되여 현시장치를 통해 볼수 있는 그물감시기는 수산부문 전문가들과 일군들, 어로공들속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연구소에서 개발제작한 어군탐지기와 그물감시기를 동서해의 여러 수산사업소 고기배들에 도입하여 어로작업에 리용해본 결과 우월성이 확증되였으며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반영한 여러차례의 기술갱신도 진행되였다.

지금 이곳 연구소에서는 어군탐지기와 그물감시기가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기술갱신을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실리가 큰 건설기계들

5월1일경기장에서 지난해 5월에 진행된 인민무력성 기공구, 마감건재품 및 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이 땅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건설신화가 어떻게 창조되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였다. 인민군대의 투철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창조력을 따라배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설비조립련합기업소 함흥건설기계공장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 새롭게 개발생산하고있는 쌍축혼합기와 이동식소형기중기, 소형력형파쇄기들은 전력소비가 적은 반면에 작업능률이 높아 건설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속에서 경제적실리가 큰 건설기계들로 인정받고있다.

일반 중력식혼합기에 비해 시간당 콩크리트혼합물을 만드는 능력이 3배나 되는 쌍축혼합기는 현실에서 이미 그 우월성이 검증된 건설기계이다. 공장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혼합기의 제작원가는 같은 종류의 수입산혼합기가격의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한대의 쌍축혼합기만을 수입할수 있는 자금으로 여러대의 쌍축혼합기를 만들어낼수 있는셈이다.

고층살림집건설과정에 각종 마감건재들을 운반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이동식소형기중기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3명정도의 남성로력만 있으면 쉽게 운반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수 있는 이 소형기중기는 전력소비가 순시로 1kW도 되지 않고 한번에 최대한 0.5t의 물동을 끌어올릴수 있으며 쇠바줄만 넉넉하면 고층, 초고층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쉽게 운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실리가 있다.

임의의 작업장으로 쉽게 운반할수 있는 소형력형파쇄기도 전력소비가 적고 시간당 0.5t의 자갈을 요구되는 규격대로 파쇄할수 있어 건설부문에서 수요가 높다.

* *

이밖에도 안주뽐프공장과 경성애자공장에서 고양정여러단원심뽐프와 전기절약형여러단원심뽐프, 지하초염수뽐프와 피뢰기를 새로 개발생산하였다. 또한 농기계생산부문에서 회전식모내는기계, 강냉이파종기, 이삭먹임식벼종합수확기, 강냉이종합수확기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으로 우리 식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대안전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 강원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안전기공장에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위훈의 자욱을 새기며 중요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방대한 대상설비생산과제에 비해 부족되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허나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할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신념이 굳건히 자리잡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기풍으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온 나날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철의 진리를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

이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단천발전소건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 삼지연군꾸리기와 혜산-삼지연철길건설을 비롯하여 중요건설대상들에 필요한 각종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였다.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장에 추가로 4대의 변압기를 생산보장할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한겨울의 추위로 하여 생산조건은 매우 불리했다.

하지만 변압기권선직장 대형작업반원들은 설비마다에 박막으로 덧집을 씌우고 그안에서 항온항습설비들을 만가동시켜 필요한 생산조건을 보장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로력을 가지고 매일 지난 시기에 비해 근 1.5배에 달하는 형권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권선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60여시간이나 앞당겨 끝냄으로써 변압기생산을 제기일에 보장할수 있도록 하였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은 소형작업반에서도 타올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작업반장 윤향실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의 성원들은 대부분이 가정부인의 몫이지만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발전기들의 권선들을 제기일에 생산하였다.

이 성과속에는 절연물작업반, 보수작업반 성원들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다.

보수작업반의 김용기, 황성남동무들은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절연물작업반의 전체 성원들도 절연물들을 제때에 생산하였다.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만장약된 직장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단천발전소건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 필요한 각종 변압기를 비롯한 설비생산에 쓰일 권선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가고있는 대안로동계급의 투쟁성과속에는 이렇듯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지혜와 힘을 바쳐가는 위훈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최영조

새형의 륜전기계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그날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1월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현대화를 더욱 완비하고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날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긴 서인옥지배인과 류순길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자면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력사의 그날을 가슴깊이 새기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식료품생산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정상화의 기본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면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풀어나가고있다. 그리고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작업장의 온도와 생산되는 사탕의 색갈까지 몸소 가늠해보시며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사탕농축기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농축시간을 철씬 줄이면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현지지도의 그날 몸소 과자의 맛까지 헤아려주시며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라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과자생산공정의 흐름선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종전보다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과자구이로를 먼적외선복사체로 개조하였으며 제품운반콘베아와 과자자동계량포장기를 우리 식으로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음료생산을 맡은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밑에 자체의 힘으로 누룩공정으로부터 숙성공정까지의 흐름선화를 실현하고 단계별거르기장치들을 새로 설치하여 제품의 질과 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도전자업무연구소와의 련계밑에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다른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대로 인민들의 수요가 높고 인기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있는 사업들을 보면 주목되는것이 있다. 행정일군들이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는것이다.

통이 크게 생각하고 마음껏 설계하라.

초급당위원장이 행정일군들에게 늘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행정사업을 어떻게 떠밀어주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이곳 연구소앞에는 수십대의 중요설비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줄데 대한 방대한 과업이 나섰다.

이를 위한 긴급협의회가 조직되였다.

연구소행정일군들의 의견은 하나같지 않았다. 연구사들이 제가끔 중요한 연구과제들을 맡고있는데 과연 제기일내에 이 과제를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컸다. 로력이 최대로 긴장한 때였던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었다. 초급당위원장이였다.

우리 연구소집단에는 그 과업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당조직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대담하게 계획을 세우라.

초급당일군의 이야기에서 큰 힘을 얻은 행정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웠다.

이에 맞게 초급당일군은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러나 로력이 부족하다보니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두팔을 걷어붙이고 땀흘리며 부분품들을 조립하고 설참에는 설비제작의 중요성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가 하면 푸짐한 후방물자로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들을 보며 연구사들은 적극 분발해나섰다. 차츰 성과가 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보며 연구소의 모든 일군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전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연구사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설비제작전투를 벌렸다.

온 전투현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며칠밤을 패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눈에 피발이 섰지만 누구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두몫, 세몫씩 일판을 제끼며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 나날에 연구소에서는 어렵게만 생각되던 수십대의 중요설비제작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이것은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행정일군들의 사업을 떠밀어주는 과정에 있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연구소앞에 어려운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연구소행정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며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초급당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큰 힘을 얻고 항상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있다. 마음껏 설계하며 일판도 통이 크게 벌리고있다.

행정일군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는 이런 당사업기풍은 참으로 훌륭하다.

본사기자 허일무

메기양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어에서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고 양어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양어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전국도처에 수많은 양어장들이 건설되였다.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자면 종자,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 축산과 마찬가지로 양어도 물고기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기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므로 비교적 병발생률이 낮고 피해가 적은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양어의 집약화수준이 나날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소홀히 대할수 없다.

메기의 사름률을 높이자면 최근에 나타나고있는 메기질병을 제때에 예방 및 치료해야 한다.

병든 메기들은 먹이반응이 심하게 떨어지며 산소부족에 의한 빈혈증상때처럼 물면에 떠올라 수직으로 곧추서있는다. 또한 눈알이 돌출되고 피부에 윤기가 없으며 몸색이 연해져 흰재색으로 보인다. 색갈만 보고도 병든 개체를 쉽게 골라낼수 있다.

원인은 기생충과 병원성세균에 있으며 이 병에 걸린 메기들은 치료과정에도 페사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 병은 무더운 6~7월에 폭발적으로 발생할수 있으며 양어장의 수질이 나빠지거나 못바닥에 페설물들이 쌓이고 사료의 질이 보장되지 못할 때, 양어못의 물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한다.

이 병을 예방하자면 수질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못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물고기를 선별하여 옮길 때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양어장들에서는 이 병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발병계절에는 한주일에 1~2번씩 양어못소독을 진행하면서 병든 고기가 없는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메기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독약이나 소금용액을 리용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발병초기에는 구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을 섞어 써야 한다. 비타민C와 비타민D를 배합먹이에 충분히 첨가하여 먹여야 한다.

메기공장들과 군중양어단위들에서는 이 병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대책을 철저히 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수산성 양어지도국 처장 김동학

천리마대진군으로 세기적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정신을 억세게 이어가자

강선의 영웅분괴압연기는 전한다

강선에는 커다란 영웅메달이 빛나는 분괴압연기가 있다.

천리마의 고향의 상징과도 같은 이 기대를 볼 때면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라는 노래구절이 먼저 떠오른다.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소박한 글발을 작업반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진심을 바치며 강철로 당을 받들어 심장을 끓이던 천리마기수들의 투쟁사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전설속의 천리마는 어떻게 강선땅에서 날아올랐는가. 그 영웅적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였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956년 12월 력사의 그날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우리 혁명은 실로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원쑤들은 안팎에서 기승을 부렸다. 전쟁의 후과를 채 가시지 못한 인민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어디서나 강철이 요구되던 그때 나라에는 6만t의 공칭능력을 가진 분괴압연기 1대밖에 없었다. 누구를 믿고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나가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강선을 찾으시였다.

강선은 우리 수령님과 참으로 류다른 인연을 맺은 곳이였다.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그이께서 고향집보다 먼저 찾으신 곳도 강선이였고 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 한주일만에 찾으신 곳도 강선이였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 늘 먼저 마음을 달리군 하신 그곳에는 충직하고도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었다.

그날을 추억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인민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로 결심하고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은 다음 인차 강선제강소에 나갔습니다. 내가 강선제강소에 나가 그곳 책임일군들에게 강재를 9만t 생산할수 없겠는가고 하니 그들은 분괴압연기의 생산능력이 6만t이기때문에 그렇게 생산하기 곤난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는 우리 인민과 로동계급밖에 믿을데가 없다고, 동무들이 강재를 다문 1만t이라도 더 생산하여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호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강선의 로동계급을 산악처럼 일떠세웠다.

《수령님!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1만t이 아니라 3만t이라도 증산해내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놈들을 전기로에 쓸어넣겠습니다!》

강재 1만t을 증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강철로 우리 당을 옹호보위하기 위한 결사전이였다.

우리가 일떠서야 나라가 허리를 편다!

오직 이 하나의 생각으로 강선이 숨쉬고 전진하였다.

분괴압연직장 로동계급이 분괴압연기운영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두대치기를 발기하였을 때였다. 보수주의자들은 나라의 외아들인 분괴압연기가 멎어서면 과연 누가 책임질수 있는가며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압연공들은 끝내 두대치기에 성공하였다.

그들은 1만t 증산에 땀만 바치지 않았다. 당시 분괴압연직장의 당분조장은 암해분자들이 일으킨 설비사고에 의하여 압연기결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를 묻고 묘비대신 팔뚝만 한 강재토막을 세워놓으며 압연공들은 피눈물속에 다짐하였다. 1만t을 더 뽑기 전에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제강소의 정문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거의나 볼수 없었다. 교대시간이면 밥곽을 든 가정부인들과 학생들이 정문을 통과할뿐 로동자들은 스스로 남아 다음교대를 돕거나 출퇴근시간마저 아까와 현장휴계실에서 쪽잠을 자군 하였다.

제강소에는 구내증기기관차가 몇대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직장마다 연료와 반제품을 실어나르다나니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면 어느 직장에서나 기관차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마주 달려가 화차를 끌어오군 하였다.

분괴압연직장에 강괴를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하는 강철직장 로동계급은 더욱 분발하여 나섰다.

1957년 1월 1일 첫 용해를 맡아하게 된 진응원작업반장은 용해공들과 토론하고 그때까지만 하여도 기능수준을 고려하여 쓰지 못하게 변압기의 최고전압단자에 붙여놓았던 봉인을 뜯었다. 소극분자들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펄쩍 뛰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힘을 믿었다.

그리하여 차지당 9시간 걸리던 용해시간을 4시간 25분으로 단축하였다.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첫 천리마작업반이지만 당시 진응원작업반은 사람들속에서 《신입용해공작업반》으로 불리웠다.

진응원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봉화를 들었을 때 그들은 거의 무기능공들이였다. 작업반원 대부분이 제강소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였고 용해기술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가렬한 전투속에서 단련되고 교양된 어제날의 병사들이였다.

진응원작업반장은 그들에게 대담하게 과업을 맡기고 실천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예비를 끊임없이 찾아 앞으로만 달리던 그 나날에 작업반원들의 기능은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나라의 강철기둥을 떠받든 집단의 마음은 하나로 더욱 굳게 뭉쳐졌다.

나라의 강철사정이 그토록 긴장한 때에 어찌 1분 1초인들 헛되이 하겠는가!

용해공들은 로보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수백℃를 헤아리는 채 식지 않은 로에 앞을 다투어 뛰여들었다.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그 로안에서 교대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다. 자신을 바쳐 동지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그 고상한 풍모는 용해시간단축에 지장을 주고있던 교대본위주의사상도 불살라버렸다.

그들은 다음교대에 늘 상태가 좋은 로를 넘겨줌으로써 자기 교대보다 다음교대성원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할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교대를 위해서 한시간이상 쓸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여 넘겨주는 새로운 기풍을 확립해나갔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은 마침내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한몸바쳐 지키는 강선로동계급의 의리와 신념은 6만t공칭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밀어냈다.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떠올린 전세대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온다.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자!

그들은 당앞에 맹세한것을 한번도 어긴적이 없었다.

당의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강선의 첫 천리마기수들은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의 가슴에 귀중한 진리를 새겨준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분발하여 일어서며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여나설 때 시대의 선구자가 된다!

본사기자 조향선

먼 후날에도 떳떳한 모습으로

3명의 로력으로 한 해동안에 17t의 용접봉 생산보장, 이것은 보산제철소 용접봉생산자들이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이다.

보산제철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보수전투때마다 이들이 생산한 용접봉들이 큰 은을 냈다.

하기에 제철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들을 가리켜 작아도 큰일을 하는 집단, 없어서는 안될 보배들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자력갱생을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한 사람만이 전진하는 사회주의대진군발걸음에 보폭을 맞출수 있다.

결코 기술기능수준이 높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였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이들에게도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없는것은 찾아내고 부족되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냈다.

언제인가 제철소에서 100여리 떨어져있는 산에 물유리를 대신할수 있는 광석이 묻혀있다는 말을 들은 로성환동무는 그달음으로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며칠후에 자동차를 대주겠으니 그때 떠나라고 일군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한시도 기다릴수 없었다. 그때 어디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용접봉이였다.

현지에 도착한 그는 해발 수백m의 산발을 톺으며 광석을 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점점 사위가 어둠속에 묻히기 시작했다. 로성환동무는 전지불을 켜들고 계속 산판을 훑어나갔다.

그러던 그는 끝내 어느 한 곳에서 광석을 찾아내고야말았다. 그때는 벌써 자정이 가까와 올무렵이였다.

온종일 산발을 헤매느라 힘이 진한 상태였지만 그는 주저앉을수가 없었다.

광석이 들어있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터에 돌아왔을 때 그의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잠판목을 헤치고 광석을 캐내느라 옷이 다 째지고 신발앞코숭이가 터져있었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던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손이 온통 상처투성이였던것이다.

《이 미욱한 사람아, 그까짓 돌덩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로성환동무는 광석이 들어있는 배낭을 쓸어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에겐 이것이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나 같습니다. 이 보물을 리용해서 용접봉을 더 많이 만들어내여 주체철을 쨍쨍 생산하는데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추억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다.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으며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후회없고 떳떳한 자욱만을 수놓을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이곳 용접봉생산자들이다.

그들은 용접봉피복제로 쓰일 원료도, 용접봉심선을 만들 철근도 자체로 해결했다.

새로운 배합비에 의한 용접봉피복제를 끝내 제조하여 용접봉의 질을 훨씬 높인 조용삼동무며 다음날에 쓸 원료가 부족한것을 알고 한밤을 꼬박 지새운 원장학동무의 피타는 노력이 제철소 로동계급이 보산용접봉이라 부르는 그 창조물에 진하게 깃들어있다.

자기들이 생산한 용접봉으로 로동자들이 일터들에서 혁신의 불꽃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신년사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이곳 용접봉생산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를 억세게 틀어잡고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여 어머니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드릴 자랑찬 선물을 마련할 일념으로 그들의 심장은 세차게 끓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그들처럼 우리는 살고있는가

청단군관개관리소 수리작업반원들

청단군관개관리소는 무연하게 펼쳐진 연백벌에 생명수를 보장해주는데서 자못 큰 역할을 한다. 바로 그러한 관개관리소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를 지켜 책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리작업반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초부터 많은 일감들이 수리작업반원들을 기다렸다. 여러 초소들에서 능력이 큰 양수기들이 들어와있었던것이다. 전력사정도 긴장하고 양수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작업반 당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후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 당원들처럼 살며 일해나가면 두려울것이 없다고 봅니다.》

당세포위원장 김경수동무의 호소에 세포당원들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10여명의 로력으로 양수기들에 대한 수리전투가 시작되였다. 그들이 과감하게 수리전투에 진입할수 있은것은 지난 기간 자체로 그쯘하게 꾸려놓은 수리기지와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때문이다.

여러해전 수리작업반으로 고장난 고압전동기 한대가 들어왔을 때였다.

고압전동기를 자체의 힘으로 수리하자는 작업반장 정경복동무의 제의는 작업반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 작업반원들앞에서 한 정경복동무의 호소는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우리가 수리하는 양수기에는 《락원》이라는 두글자가 새겨져있다. 그 글자를 보며 생각되는것이 없는가. 락원의 로동계급은 맨주먹으로 수류탄을 만들어 싸우는 전선에 보내주었고 전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의 뜻을 받들어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냈다. 전동기를 미처 수리하지 못하여 양수기를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앞에 떳떳이 머리를 들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어 전문공장에 실어가 수리해오군 하던 고압전동기를 자체의 힘으로 수리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실패가 계속되였지만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심장에 간직한 작업반원들은 끝내 고압전동기를 자체로 수리해내고야말았다.

이 나날에 작업반원들은 당에서 준 과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고야만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이들은 공작기계들과 절단기들을 비롯하여 양수기수리에 필요한 설비들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무슨 일을 해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같았다.

전세대들의 애국충정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자는것이였다.

새해에 들어와 전력사정이 긴장하였지만 자체로 제작한 벼겨가스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여러대의 양수기수리를 성과적으로 끝낸 이들은 오늘도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청단군관개관리소 수리작업반에서 울려나오는 혁신의 동음, 바로 여기에는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진해가는 로동계급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신현규

보배공장의 동음을 지켜 50여년

문평제련소 1보수직장 중기계수리작업반 반장 리연식동무

문평제련소 연혁소개실을 돌아보던 우리는 한장의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보수직장 중기계수리작업반 반장 리연식동무의 사진이였다. 중기계수리작업반에서 54년 로동, 공훈기계제작공…

한직종에서 50여년, 과연 그의 가슴속에는 무엇이 간직되여있기에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한초소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고 1보수직장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만난 1보수직장 부문당위원장은 리연식작업반장과 일한 년한은 비록 길지 않지만 제련소가 자랑하는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리연식동무가 중학교를 마친 후 어느 한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문평제련소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것은 천리마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던 1960년대 중엽이였다. 그는 로동생활을 시작하여 얼마 안있어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받아안게 되였다.

몸소 제련소를 찾아오시여 문평제련소는 우리 나라의 보배공장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접하고 온 제련소가 격정으로 들끓었던것이다.

나라의 보배공장!

그날 리연식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한생토록 보배공장의 동음을 지켜갈 마음속맹세를 가다듬었다.

지향이 아름다우면 그 인생행로에는 값높은 자욱들이 찍혀지기마련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제련소에는 많은 난관들이 막아나섰다. 그 하나가 제련소의 여러 생산공정들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송풍기들이 하나, 둘 동음을 멈춘것이였다.

새 송풍기를 구입해달라고 손을 내밀데도 없었다. 리연식동무는 송풍기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할 결심을 내리였다.

간단한 결심이 아니였다. 수백m의 송전선공사를 앞세워야 했고 만일 제작에 실패하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줄수도 있었다. 보배공장의 동음을 다시 울리는가 아니면 력사의 역풍에 공장의 동음이 영영 사라지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그는 주저없이 자기 한몸을 내대는 길을 택하였다.

작업반원들을 이끌고 피타는 탐구와 열정, 땀방울을 바쳐가며 마침내 송풍기제작에 성공하였을 때 그 긍지와 보람은 얼마나 컸던가.

보배공장의 동음, 그것은 곧 그의 숨결이였고 삶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수입에 의존하여야만 했던 중기계메달을 우리의 재료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한것을 비롯하여 모진 난관속에서도 제련소가 자력갱생의 동음을 높이 울려온 갈피에는 그의 값높은 헌신이 깃들어있다.

그가 반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송풍기와 배풍기를 비롯하여 새로 만들어낸 기계설비만 헤도 수십대를 헤아린다. 50여년세월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불같은 헌신과 위훈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많으랴.

우리는 생산현장에 나가 기계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리연식동무를 만났다.

후리후리한 키며 패기가 넘치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전세대의 변함없는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의 머리속에는 연혁소개실에 제련소의 오랜 일군들과 함께 그의 사진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우리는 생각했다.

자기의 일터, 자기의 직업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지니고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이런 참된 로동계급을 후대들은 잊지 않으며 그 삶은 단위의 연혁사,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수 있는것이라고.

본사기자

외무성이 주조 외교단을 위하여

연 회 마 련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외무성이 주조 외교단을 위하여 18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비롯한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용호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떨쳐나선데 대해 언급하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적립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팜 비엣 홍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신년연회를 마련한 우리 나라 외무성에 주조 외교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평화와 번영,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외교대표들의 나라 국가수반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우리 나라와 외교대표들의 나라들, 국제기구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늘 앞채를 메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오의 기수가 되여 내달리고있는 초급일군들속에는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4분조장 최순배동무도 있다.

제대군인인 최순배동무는 20여년을 분조장으로 사업하면서 분조앞에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지력을 높이는데 알곡증수의 기본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는 거름생산전투에로 분조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나날 그는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지력이 낮은 여러 정보의 땅을 스스로 맑아 옥답으로 만들었다.

그는 매달 계획적으로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분조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뿐만아니라 최순배동무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분조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모르고 농사일에 전심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원기연

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삼흥정보기술교류소에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하기에 생소한 탐구의 길에서 시련과 난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든다는 자각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개척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손잡아 이끌어주고 걸음걸음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이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두뇌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훌륭한 프로그람들을 련이어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람들중의 하나인 종합열람프로그람 《나의 길동무》는 오늘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가 되고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종합열람프로그람 《나의 길동무》가 설치된 지능형손전화기와 판형콤퓨터들을 리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혁명소설들을 청취하고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공연도 시청하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더욱 수양해가고있다.

또한 각종 전자도서와 방송록음물, 응용프로그람들은 물론이고 예술영화, 극작품, 화술소품, 화면반주음악, 과학기술상식, 외국어학습편집물 등 다양한 동영상편집물들도 보거나 듣고 리용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더욱 풍부히 해나가고있다.

새로 개발된 평양시길안내프로그람 《길동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도 대단하다.

《평양시안의 려객운수로선들과 상업봉사시설들, 과학,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들이 다 현시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쓸모있고 편리한 프로그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삼흥제품이 삼흥제품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즐겨찾는 〈길동무〉와 같은 프로그람들을 더 많이 개발해주십시오.》

…

바로 이런 성과들인것으로 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에서는 종합열람프로그람 《나의 길동무》와 평양시길안내프로그람 《길동무》를 비롯하여 이들이 개발한 여러 프로그람들이 2017년 정보기술우수제품으로 평가되였으며 삼흥정보기술교류소는 2017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라는 부름을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상건축설계를 다그치고있다.

전력증산투쟁에 활력을 더해주는

애국의 마음들

각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대동력기지들과 탄전들에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새해벽두부터 화력발전소들과 탄광들에 달려나간 녀맹중앙에술선전대와 각지 녀맹기동에술선동대원들은 생산현장들에서 특색있는 경제선동활동과 방송선전, 혁신자축하모임을 진행하여 로동계급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를 찾은 평천, 형제산, 락랑구역의 녀맹원들은 기백넘친 출근길선동과 경제선동으로 로동계급의 전력증산투쟁을 고무해주었다.

북창군안의 녀맹원들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구내철길정리와 여러 직장들에서 제기되는 일들을 스스로 맡아하였으며 덕천, 순천, 개천, 안주시와 득장구의 녀맹원들도 흘린 탄 수집, 버럭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함경남도 수동구안의 녀맹원들은 성의껏 마련한 수백점의 공구들과 로동보호물자들을 둔전탄광 탄부들에게 안겨주고 경제선동도 참신하게 벌려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저는 우리모두가 안겨사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온 넋으로, 폐부로 절감하고 이 심정을 달랠길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저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입원당시 저는 심한 아픔으로 하여 몹시 불안에 휩싸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장 선우혁선생님을 비롯한 고려치료과의 의료일군들은 즉시 협의회를 열고 지혜를 합쳐 치료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습니다.

어린애의 어머니인 담당의사 리은경선생님은 퇴근시간도 잊고 치료전투에 전심하였습니다.

그는 짬시간을 리용하여 문헌연구를 하고 지난 시기의 치료경험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약재를 가지고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적용하면서 저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림은혜, 박은별동무를 비롯한 간호원들의 정성도 참으로 지극하였습니다.

고려치료과 의료일군들의 친혈육의 정에 떠받들려 저의 병은 완전히 낫게 되였으며 저뿐만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치료성과도 날로 확대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치료를 받고보니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주고 참된 보건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큰절을 드립니다.

선교구역 남신1동 29인민반 장희복

농업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황금벌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자

더 많은 연구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으로

농업연구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농업연구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새기며 전인민적인 총공세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자각한 농업연구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다.

농업연구원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관철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올해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육종하며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을 비롯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하고 그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다수확을 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나가는데서 연구원안의 모든 과학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심장에 불을 다는 격동적인 화선선동이 따라서니 이곳 과학자들의 열의는 나날이 앙양되고있다.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다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벼연구소와 강냉이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연구단위의 과학자들이 신들메를 더욱 조이였다. 지난해에 이들은 농작물유전자원을 늘이며 고지대에서 재배할수 있는 고구마품종을 육종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다수확품종들의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현실에 적극 도입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알곡, 남새 등 여러 작물의 수많은 우량품종들을 육종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새로 육종한 논벼 1대잡종들과 강냉이 1대잡종들의 원종을 증식하고 생산에 널리 도입함으로써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알곡고지점령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이와 함께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고 가물, 추위 등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으며 병해충견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농작물다수확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기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과학자들은 내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간석지에서도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는 벼품종들과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중산간지대에 알맞는 강냉이종자, 가물견딜성이 센 밭벼품종과 원그루재배조건에서 정보당 4t이상 나는 콩종자를 비롯하여 우량한 새 품종연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나라에 과학농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벌려고있다.

농업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 100여개의 시, 군들과 백수십개 농목장들에 수많은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한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면서 올해에 다수확재배방법인 벼강화재배방법을 넓은 면적에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현부제형종자피복제 등의 공업적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문제, 여러가지 생물농약제품들을 생산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이와 함께 농작물생육예보의 정확성과 과학화수준을 더 높이고 전국의 농업생산단위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해결해주기 위한 먼거리문답봉사와 과학기술자료보급을 정상화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도 조직되였다.

올해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연구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웅

과학기술이자 증산

◇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농업전선이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매우 높다.

내각의 한 일군은 최근년간 왕가물을 비롯하여 불리한 기상기후현상이 지속되면서 농업생산 특히 논벼농사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극복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논면적이 줄어드는 조건에 맞게 농업과학자들이 육종한 밭벼를 뒤그루나 강냉이사이그루 등으로 재배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온 고원군과 운전군 동삼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다수확벼재배방법인 벼강화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덕을 본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성과가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운전군 대오협동농장,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도 불경재배, 록비작물재배, 그루바꿈농법 등 자체의 실정에 맞는 보호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력을 높이고 알곡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 헌신의 열정이 깃든 우량종자, 다수확농법을 비롯한 귀중한 연구성과들은 이처럼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가 차넘치는 농업전선은 더 좋은 종자, 보다 실리적인 영농방법, 능률높은 농기계를 기다리고있다.

◇ 농업과학자들의 어깨우에 농업전선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최전방이며 농업전선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업부문 과학자들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현시기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최전방으로 정하였으며 농업전선에서도 돌격선의 맨 앞장에 서있는 농업부문 과학자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핵과학자들이 맡고있는 임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다.

◇ 농업과학자들은 농업전선의 승리를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이자 증산이다.

농업과학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핵과학자들을 비롯한 국방과학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가치있는 농업과학기술성과들로써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

농업과학자들은 농업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다수확우량품종과 염기견딜성벼품종 등을 더 많이 육종, 도입하며 농업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벼강화재배, 겹재배, 큰모재배, 불경재배, 강냉이무지재배기술 등과 같은 선진영농방법들이 농업생산실천에서 실지로 큰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농기계연구부문의 과학자들은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적들의 제재책동에 통구멍을 내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

리과대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리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효능높은 농작물성장조절제 디씨피티에이가 넓은 면적에 도입되여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세계적으로 농작물의 수확고를 훨씬 높이는 방도의 하나로서 수많은 농작물성장조절제들과 레이자, 자기마당 등에 의한 종자처리기술들이 개발되여 농업분야에 널리 적용되고있다.

식물호르몬이나 식물체내에서 식물호르몬의 분비와 평형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제조하여 농작물의 종자나 식물체를 처리하면 가물과 병해충 등에 대한 견딜성을 높이고 생육을 조절하여 수확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다.

이런 물질들은 정보당 사용량이 대단히 적다. 또한 사용방법이 간단하며 증수효과가 큰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디씨피티에이는 정밀화학제품으로서 첨단수준의 정밀유기합성기술을 가진 일부 나라들에서만 제조하고 생산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화학물질들의 제조방법과 농작물에 대한 적용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여있지 않다.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디씨피티에이는 뿌리활성을 높여주고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동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엽록소의 활성을 높여주어 농작물의 생육을 빠르게 할뿐아니라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특이한 성질로 하여 콩, 강냉이, 논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인다.

이 농작물성장조절제를 과수, 약용식물, 버섯 등에 적용하여도 품질을 높이고 수확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리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 정밀유기합성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디씨피티에이의 제조방법과 알곡, 남새를 비롯한 주요작물들에 대한 적용방법, 경제적효과성을 연구해명한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어떤 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실장 리정우, 연구사 리석철통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높은 정밀유기합성기술을 요구하는 농작물성장조절제의 제조방법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공업적방법으로 대량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알곡작물의 종자를 처리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농업성과 농업연구원 농업화학화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농업과학자들과 기술일군들은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최신과학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과정에 개발된 우리 식의 농작물성장조절제를 많은 지역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리과대학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도입단위들마다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실증되도록 하였다.

도입단위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콩종자에 새롭게 연구완성한 종자적심처리기술을 적용하면 정보당 디씨피티에이의 사용량을 줄이고 약제분무에 동원되던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콩의 수확고는 110~120%이상, 강냉이종자에 도입하면 수확고를 110~115%이상 높일수 있다고 한다.

리과대학의 과학자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함이 없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해마다 수십만정보분의 콩, 강냉이종자피복제용 디씨피티에이를 생산하여 농업전선에 보내줌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리과대학의 과학자들은 더 높은 첨단연구성과들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에 넘쳐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현실에서 은을 내는 지적제품들

높은 빛합성촉진효과를 나타내는 고농도 린, 카리복합영양액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고농도 린, 카리복합영양액 《부흥1》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치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적립장에서 그 관철을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런 결실을 안아왔다.

고농도의 린(25%)과 카리(10%)를 함유하고있는 새로운 복합영양액에는 마그네시움, 류황, 칼시움, 철, 동, 아연, 망간, 몰리브덴, 붕소 등과 같이 농작물의 생육에 필수적인 여러가지 다량 및 미량원소들과 빛합성촉진물질이 균형적으로 포함되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복합영양액을 리용하면 벼,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과 남새작물의 빛합성속도와 생리적기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물과 낮은 온도, 염기를 비롯한 불리한 환경요인에 대한 저항성도 높여주어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소출을 높일수 있다.

작물의 빛합성능력이 크게 향상되는것이 장마철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것으로 하여 장마철빛합성강화제로는 아주 효과적이다.

도입해본데 의하면 논벼와 강냉이의 소출은 110~125%로, 배추, 오이, 고추, 콩의 소출은 150%이상 높아졌다. 특히 린영양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강냉이는 종자처리만 하여도 대가 굵어지고 뿌리가 많이 나오면서 정보당 500~1000kg이상 증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단위들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온 나라에 과학농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내놓을 불타는 열의를 안고 오늘도 연구사업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온실남새생산에서 실리가 큰 남새재배용활성수

우리 나라를 알곡과 남새, 고기와 과일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와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남새재배에 리용되는 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새생산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질이 좋은 물을 리용하는것은 식물체의 물에 대한 흡수능력과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비료와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남새의 수확고를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회합도, 산화환원전위와 같은 물리화학적특성들을 변화시켜 활성화한 재배용수는 토양속에 침적된 영양원소들에 대한 용해도를 높이며 그것이 남새의 뿌리와 줄기를 통하여 활발히 흡수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남새는 공급된 비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되며 따라서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싹트기와 생육을 촉진시켜 수확고를 높이고 그 맛과 질도 개선할수 있다. 또한 재배용수는 활성화되는 과정에 전기적신호와 그에 의해 산생되는 여러 화학물질들에 의하여 무균화된다. 하여 이것을 리용하면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깨끗한 작물을 자래울수 있다.

이 남새재배용활성수를 많은 단위의 남새온실들에 적용하여본 결과 열매남새의 생산량은 120%, 잎남새와 뿌리남새의 생산량은 각각 130%로 높아졌다.

과학자들은 이와 함께 활성화된 재배용수를 공업적으로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시키는 과정에 적은 전력으로도 어디에서나 손쉽게 시간당 1000㎥까지의 많은 재배용수를 활성화할수 있게 하는 각이한 능력의 활성수처리장치제작기술도 내놓았다.

지금 과학자들은 온실남새뿐만아니라 모든 작물들에로 성과를 확대하며 현실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도서해설선전사업을 잘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회령시출판물보급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온실남새생산장성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실남새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근로자들이 온실남새생산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온실들의 보온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정보당 수십t의 질좋은 거름을 충분히 낸 농장에서는 온실들의 관리운영과 작물배치,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매일 평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남새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새모기르기를 질적으로 한 기초우에서 락랑구역 중단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생육단계별에 따르는 씨솎음과 덧비료주기, 생물농약주기 등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함으로써 많은 남새들을 푸르싱싱하게 자래우고있다.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과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도 겨울철조건에 맞게 온습도보장과 영양관리를 잘함으로써 첫 작물수확에서부터 옹근소출을 내고있다.

농장들에서는 온실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품종배치를 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하면서 비배관리를 착실하게 하여 풍요한 남새작황을 마련해가고있다.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만경대구역 칠골남새전문농장,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온실남새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닐 때

염주청년간석지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이라면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진심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염주청년간석지농장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훌륭히 전변되고있다.

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 정중히 일떠섰다.

종합청사와 관리위원회청사, 농장문화회관, 편의봉사기지, 탁아소와 10일유치원, 소학교분교, 농촌살림집들이 규모있게 들어앉은 농장소재지는 마치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해마다 수십동의 살림집건설을 꾸준하게 내민 결과 최근년간 120동의 살림집과 기계화작업반건물을 일떠세웠다.

또한 2동의 무난방태양열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거기에서 돼지와 닭을 비롯한 집짐승을 기르면서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사업을 전개한것이다.

농장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킨 사실이 그 실례이다.

지난해 어느날이였다.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농장초급당위원장사업을 시작한 로상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여러 대상건설을 시작하였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지어 어느 한 건설대상은 이미 벽체축조를 해놓고서도 반년동안이나 손을 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일군들은 건설대상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겨울철전으로 완공할수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모든 건설대상들을 하루빨리 완공할수 있겠는가.)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밀고나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과 마주앉아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물론 자재와 로력문제가 걸리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이 세운 건설목표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농장을 하루빨리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농장에서는 건설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여러 대상건설을 적극 밀고나가기로 한데 기초하여 전투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먼저 영생탑건립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건설에 력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계화작업반건물과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건설도 다그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신발창이 닳도록 뛰면서 수백t의 흔석과 많은 목재, 철근 등 자재들을 해결하여 실어들이면서 건설을 적극 밀고나갔다.

이렇게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한편 력량을 집중하여 공사를 힘있게 벌려나가니 공사속도가 종전보다 높아졌다.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영생탑을 훌륭히 건립한데 이어 사상교양거점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건설을 결속하였다.

또한 기계화작업반건물을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곳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편의봉사기지와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소학교분교와 10일유치원, 탁아소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은 사실도 긍정적이다.

농장소재지에 여러 대상의 공공건물을 건설한 조건에서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와 수십동의 살림집을 건설하면서 소학교분교와 10일유치원, 탁아소를 개건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많은 품을 들여야 건설자재를 마련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와 수십동의 살림집건설, 소학교분교, 10일유치원, 탁아소개건공사를 다음해로 미루자고 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다고 하면서 계획대로 내밀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세멘트와 흔석을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를 실어들이였다. 이와 함께 수지창문과 출입문, 외장재 등도 해결하였다.

공사가 벌어지는 나날 일군들은 밤잠을 잊고 뛰여다니면서 모든 대상들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현대적인 미감이 나게 건설하거나 개건하도록 이끌었다.

자기가 사는 고향마을을 살기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킬 일념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여러 대상건설과 개건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렇게 하여 농장에서는 소재지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2층짜리 편의봉사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수십동의 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새집들이를 하였으며 소학교분교와 10일유치원, 탁아소도 훌륭하게 개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농장에서 제7작업반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작업반들에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청년학교, 축사와 태양열온실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사실, 마을과 산들에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이곳 일군들이 농장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사실을 다 적자면 끝이 없다.

이곳 농장의 현실은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당정책관철의 기수들인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강력한 총대우에 존엄과 행복, 평화가 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라면 다 국가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려 한다. 또 국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려 한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모든것이 저절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력강화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국가의 존엄은 세계정치무대에서 차지하는 권위이고 지위이며 영향력이다. 인민의 행복은 국가의 존엄과 평화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어느 나라 인민이든 자기 국가의 존엄을 만방에 높이 떨치면서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기를 바란다.

총대가 강해야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는 국력에 달려있고 국력에서 기본은 군력이다.

력사의 유구성과 령토의 광대성, 막강한 경제력과 과학기술발전 등 나라의 대외적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다 합친다 해도 총대의 위력을 대신할수 없다. 총대가 약하면 평화가 깨여져나가고 하루아침에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의 존엄이 짓밟히게 되며 인민이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게 된다. 엄중한 국가재난이 들이닥치도 하소연할데 없고 그 누가 선뜻 도와주지도 않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세기가 바뀌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지만 제국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있으며 그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은 전략적자원지대, 군사적요충지에 있는 나라들,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전쟁의 총포소리를 울리고있다. 지난 세기에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행성을 화염과 살륙전의 란무장으로 만들었던 제국주의자들은 21세기에 또다시 이 지구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밀어넣으려고 발광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였으며 전란의 참화속에 빠져들어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이 나라들에서의 비참한 현실은 총대를 떠나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갓 해방되였을 때에도, 1950년대의 전쟁으로 하여 나라가 재더미로 되였을 때에도 자립적국방공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미제가 조성한 까리브해위기로 하여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을 때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높이 받들고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그 정당성은 현실로 증명되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령해에 들이밀고 계획적으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미쳐날뛰던 미제가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것은 우리가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을 강화하였기때문이다. 강력한 총대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제의 전쟁도발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면서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군인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자립적국방공업에 토대한 군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나라의 존엄을 더욱 빛내이고 인민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갈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

군력강화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사중의 국사이다.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친선적뉴대를 두터이해나가는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군인들을 반제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자립적국방공업에 의거한 군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이다.

사상이 없는 총대, 반제계급의식으로 만장약되지 못한 총대는 막대기보다도 못하며 오히려 우환거리로 된다.

력사는 이러한 총대가 선렬들이 이룩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고 자기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떨쳐나선 인민의 가슴을 서슴없이 겨눈 사실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혁명과 반혁명,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결사전에서 총대가 한치의 흔들림없이 자기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자립적국방공업에 의거하지 못하는 총대는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 평화를 끝까지 수호할수 없다.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이 만들어 팔아먹는 장비들로 군대를 무장시키는것은 사실상 군사적예속의 길에 빠져드는것이다. 무장장비들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도 수입해야 하며 그 무기리용에 따르는 전술체계와 전법도 수출국의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다 엄중한것은 수출국들의 제재를 받으면 군사력이 순간에 약해지는것이다. 별수없이 머리를 숙이고 그 나라들의 강박과 회유에 굽어들게 되여있다.

지난 시기 지역강국으로 알려져있고 비교적 유족하게 산다고 하던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제재에 의해 군사력이 약해진것은 그들의 총대에 반제자주의식이 만장약되여있지 못하고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가 미약하여 자국에서 제기되는 무기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인민을 화약내가 팍 들어차고 피비린내가 풍기는 전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우리의 총대는 반제계급의식으로 만장약되고 자립적국방공업에 의거한 총대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지구상에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들과 초강력열핵무기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에서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하게 되였다.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전란의 참화속에 빠져 고통을 겪고있지만 우리는 그런 불행을 모르고 자기의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의 핵무력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는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총대를 강화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 계속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손 소 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스위스, 벨가리아, 중국, 나이제리아, 베닌, 남아프리카, 앙골라에서 경축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들이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대원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국방력강화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달성할수 있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될수 있었다.

김정숙동지는 김일성대원수의 가장 충직한 전우, 동지이시며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일대원수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안아키우신 혁명의 어머니이시다.

12월의 뜻깊은 명절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업적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나이제리아와 베닌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전시된 사진들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자기 령도자를 얼마나 흠모하고 따르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조선과 같이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결의 화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말하였다.

앙골라의 여러 인사들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인터네트잡지, 홈페지들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그이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은령도자의 기상》, 《비범한 령도력》, 《미래를 사랑하시는분》등의 제목으로 글들을 특집하였다.

인터네트잡지 《리브저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보다 병사대중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이의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은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 있어서 병사들은 자신과 한피줄을 이은 사랑하는 아들딸들이고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 전우들이다.

병사들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군인들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언제나 병사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시고 운명도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병사들이 어버이라고 부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예술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강국건설에서 최상의 목표와 웅대한 설계도를 제시하시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신다.

천만군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며 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일으켜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가 경탄하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 대한 김정은령도자의 현지지도는 말그대로 끝이 없으며 그이의 발자취가 어리고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의 강국건설위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인터네트홈페지들인 《그리론쁘레스찌쥬》, 《그리론-페르쏘날》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인터네트들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대변인은 일본의 아베일당이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일부 유럽나라들을 행각한 일본수상 아베가 이 나라들과 쌍무관계를 협의하는 기회에 매번 우리의 《핵, 미싸일개발》과 랍치문제를 거들며 이 나라들을 반공화국압박공조에 끌어넣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아베는 《북조선이 월뉴스와 베오그라드도 사거리에 넣을수 있는 탄도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유럽전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이다.》, 《최대한의 압력을 통해 북조선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외상 고노도 아랍추장국과 카나다를 돌아치면서 《북조선이 핵, 미싸일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시간벌이를 하고있다.》, 《북조선의 〈미소외교〉에 헛눈팔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외교관계단절 등 압력을 선동하였다.

아베일당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들며 반공화국압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에서 《국난》을 조작하여 온 일본땅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할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아베가 유럽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집요하게 설교한것은 저들의 위험천만한 목적실현을 위해 얼마나 환장이 되여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압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정책을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한 나라 수상으로서는 너무도 어리석고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아베일당이 념불처럼 외워대는 랍치문제에 대하여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해결된 문제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랍치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는것은 장기집권을 노린 기만극에 불과하며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기필코 아베일당이 지게 될것이다.

수백만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랍치하여 갖은 정신육체적고통을 들씌운 반인륜적범죄에 대해서는 청산하지 않고 죄를 덧쌓을수록 일본에 안길 우리의 매도 더 커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일당은 누워서 침뱉는 격의 놀음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변경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세계도처에서 규탄배격받는 미국

《중동평화계획》을 단죄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14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고위성원들의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제창하는 《중동평화계획》을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트럼프가 《중동평화에 관한 현세기의 협약》이라는것을 들고나온데 대해 폭로하면서 이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모독으로 락인하였다.

지금 트럼프는 꾸드스를 평화협상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팔레스티나인들은 꾸드스를 떠나지 않을것이며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에 대한 간섭책동을 비난

수리아인민회의 의장이 최근 이란국회대표단과의 상봉석상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간섭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늘 중동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놀았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것은 체질적인 악습으로 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미행정부는 언제나 유태복고주의정권의 요구와 리익을 비호해왔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수리아와 이란 두 나라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있는 테로분자들을 반대하여 한전선에서 싸우고있으며 지역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기도를 배격

이란외무성이 13일 성명을 발표하여 핵합의를 파기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이란핵합의를 뜯어고치려고 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란은 핵합의를 벗어난 그 어떤 의무도 리행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핵합의에 명기된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합의사항을 위반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현재도 앞으로도 핵합의의 그 어떤 수정도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이란원자력기구 대변인이 14일 자기 나라 군사기지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미행정부가 핵합의를 구실로 이란정부에 군사기지사찰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군사기지사찰문제는 핵합의내용에 포함되여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란정부는 자기 나라 군사기지에 대한 외국인접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인종차별망언 규탄

— 아프리카동맹의 경제, 사회 및 문화위원회가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망언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최근 트럼프가 《더러운 변기통》이라는 상스러운 막말을 내뱉으며 아프리카인들을 심히 모독한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트럼프가 자기의 망언에 대해 아프리카인들앞에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3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망발을 규탄하였다.

최근 트럼프가 이주민문제를 론의하는 회의마당에서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나라들을 《더러운 변기통》과 같은 나라들이라고 모독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것은 트럼프의 무지를 드러낸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망발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감비아외무, 국제협조 및 해외동포성이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을 《더러운 변기통》으로 모독한 미국대통령 트럼프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인종주의적인 망발을 내뱉는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스위스에서 반트럼프시위

스위스의 베른에서 13일 반트럼프시위가 벌어졌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세계경제연단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1 000명이상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트럼프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다보스로 오지 말라》, 《자본주의는 앞날이 없다》, 《세계경제연단을 취소하라》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세계경제연단에 참가하기로 한 이후 유럽에서 반트럼프기운이 더욱 거세지고있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군국주의부활은 자멸의 길

2017년은 일본에서 극우익세력의 전쟁국가조작책동이 절정에 달한 해라고 평가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국가조작을 위해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불리한것은 뜯어고치려는 움직임이 일본의 정계에서 로골화되였다.

지난해 정초부터 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현행헌법을 개악하려는 흉심을 수차례에 걸쳐 드러내놓았다.

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였는가 하면 우익보수떨거지들이 저저마다 떨쳐나 헌법개정안을 년내에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리상적인 모습을 갖춘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나발까지 뻐젓이 불어대였다. 《리상적인 모습을 갖춘 일본》이란 곧 전쟁국가로서의 일본을 념두에 둔것이다.

그에 따라 일본반동들은 헌법 9조를 뜯어고치려고 발악하였다. 헌법개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의원을 불의에 해산하였다. 새로 선거된 국회 중의원에서 국회의원들의 82%가 헌법개악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은 헌법개악이 시간문제로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군사적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본반동들은 2016년에 비해 1.4% 증가된 5조 1 251억엔을 2017회계년도 군사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의 군사비는 5년간 련속 증가하였다.

전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책동이 로골화되였다. 지난해 일본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가와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위대》가 중거리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보유하는 문제를 론의해야 한다고 떠벌이고 미국에 건너가 순항미싸일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이것은 그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려는 일본극우익세력들의 파렴치한 기도의 발로였다.

실지로 일본은 2018회계년도 군사예산에 전투기에 탑재하는 신형장거리순항미싸일관련 예산도 포함시켰다. 상대측 기지를 불의에 타격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의 도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지난해 《평화》와 《방위》의 미명하에 적극화된 군수지원협정체결확대책동도 주목되였다.

일본이 유럽나라들가운데서 영국과 처음으로 탄약을 비롯한 물자를 호상지원하는 군수지원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한것만 봐도 그러하다. 이미전부터 일본은 물자제공에 탄약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여왔다. 이미 미국, 오스트랄리아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안전보장관련법에 맞추어 갱신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여론들은 일본의 군수지원협정체결확대책동에는 군사대국화의 야심이 반영되여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였다.

재침을 위한 물질적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일본사람들의 머리속에 군국주의독소를 심어주는데도 박차를 가하여왔다.

지난해 일본방위상이 모리또모학원에서 학생들이 태평양전쟁시기의 《군가》를 부르도록 하고 이전 왜왕의 《교육칙어》를 외우도록 하고있는것을 극구 비호하면서 《전쟁전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떠벌인것은 명백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재침열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로골적인 선동이다. 일본의 새로운 중학교력사교과서는 건국신화로부터 고대 및 중세사는 물론 근대사와 현대사까지 완전히 국수주의로 일관되여있다. 일제시기 어지럽게 울리던 《전장에서 싸우다가 남아답게 야스구니진쟈에 묻히라.》는 광란적인 웨침은 계속 울려나왔다.

미국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아시아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없다는 하수인으로서의 일본반동들의 사고관점이 지난해에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워싱톤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벌려놓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조를 골자로 하는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을 행각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는 아베와 일본《자위대》통합막료장 등을 만나 《조선의 핵, 미싸일위협》설을 떠들며 그에 따르는 공동대응방안을 모의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미국은 일본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으며 일본은 그들대로 미국을 등에 업고 재침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일본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 나라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고 걸고드는데는 이러한 타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공모결탁행위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제압할수 있는 우리의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만을 벼려주었다.

오늘날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으며 과거죄악과 오늘의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책동을 미화분식하려 하지만 세계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완전히 분별을 잃고 군국주의마차에 더욱 채찍질을 가하고있는 일본의 망동은 스스로 자멸을 촉진하는 어리석은짓이다.

본사기자 김 승 걸

통하지 않는 강권과 전횡

최근 일본의 《도꾜신붕》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지난해 트럼프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완전실패하였다고 평하였다.

새해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어쩔수 없이 실패라는 말과 어울리게 되였다. 극도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개물리우듯 하는 미국의 가긍한 처지를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새해의 첫시작부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미국을 신랄히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번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한 일본의 《도꾜신붕》은 글에서 미국이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것과 관련한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그 결정의 무효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것은 트럼프외교의 완전한 실패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는 미국은 이란의 사회제도를 파괴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다, 하지만 이란인민의 용기와 투쟁에 의해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부단히 강화하고있는것은 비법적이며 일방적인것이라고 미국의 오만성과 독단을 신랄히 단죄규탄하였다.

원인없는 결과물이란 있을수 없다.

세계의 곳곳에서 반미합성이 비발치듯 터져나오며 고조되는것은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독단적인 정책이 낳은 응당한 결과이다.

지난해 미국은 극도의 강권과 전횡으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국제무대를 더럽혀왔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발표, 여러 국제조약과 기구들에서의 탈퇴놀음을 벌려놓았고 이스라엘주재 자국대사관을 꾸드스로 옮기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등 못된짓만 일삼아왔다.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을 세계가 좋아할리 만무한것이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기마련이다.

미국의 오만한 처사는 많은 나라들을 단결과 협조강화에로 떠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과 파키스탄국방상사이에 있은 전화대화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패배를 당하고있는 책임을 다른 나라들에 넘겨씌우고있다고 까밝히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흉악하고 어리석은 정책들로 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수리아, 예멘 등 나라들에서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무고한 민간인학살만행이 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지역나라들사이의 군사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국방상도 자기 나라가 테로분자들을 지원하고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이슬람교나라들이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사는 결코 미국이 바라는 대로만 흐르지 않고있다. 미국이 아직까지도 지배주의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일삼고있는것은 그야말로 파멸을 촉진하는 어리석은짓이다.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에 미쳐 국제무대에서 계속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다면 배격밖에 차례질것이 없으며 미국을 단죄하는 목소리는 세계적범위에서 더욱 크게 울려나올것이다.

본사기자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기개발책동

미국이 핵무기개발에 계속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AP통신이 밝힌데 의하면 미행정부가 로씨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개발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통신은 미국방성이 작성한 《핵태세검토보고서》초안에 로씨야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핵전쟁능력을 높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폭로하였다.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는 2월초에 이 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승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무대에서 자주적인 나라들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핵위협》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 그 막뒤에서 저들의 핵무기고를 늘이고있는 미국이야말로 지구상에 핵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탄압만행

이스라엘군이 15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칼킬야시교외에서 24살 난 팔레스티나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미국이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이래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16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목숨을 잃고 5 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살인만행은 팔레스티나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 우루마시의회 미군의 련이은 직승기사고에 항의

일본의 오끼나와현 우루마시의회가 최근 미군직승기들이 비행도중 련이어 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항의하는 결의문과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문과 의견서는 6일과 8일에 후텐마미공군기지소속 《UH-1》직승기와 《AH-1》공격용직승기가 비행도중 사고를 일으켜 불시착륙한것을 문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현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극도에 달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59년에 그곳의 한 소학교에 미군전투기가 추락하여 17명의 인명손실이 초래된데 대해 상기시키고 미군비행기들의 무분별한 비행연습소동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81010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